

제1장

선진·한당시기 유학 연구

김경희 (조선대학교)

1. 머리말

본 보고서는 2022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 논문 중에서 중국 선진 · 한당 시기 관련 유학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논문 색인의 대상은 2022년 국내 대학에 제출된 박사학위 논문과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에 정식으로 수록된 논문(KCI)을 기준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한국학술논문정보서비스(KISS)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논문 중에서 본 조사의 분석 대상은 유학이나 유교에 관련된 논문으로 제한하였다.

2022년도 학술지를 분석한 결과 중국 선진 · 한당 시기의 유학과 관련된 논문은 총 82편으로 확인되었다. 그중에서 박사학위 논문은 10편이고, 일반 논문이 72편이다. 총 편수에서는 2020년도 95편, 2021년도 72편에 비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2022년도에는 선진시기가 총 78편, 진한 시기 4편이다. 2020년도에는 선진시기가 87편, 진한 시기 7편, 당나라 시기 1편이었으며, 2021년도에는 선진시기가 65편, 진한 시기 7편이었다. 이전의 두 해와 같이 선진시기의 논문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진한 시기의 유학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논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분류 방식에 따라 나누어보았다. 첫째, 인물별 분류, 둘째, 주제별 분류이다. 인물별 분류에서는 유가 사상을 대표하는 공자 · 맹자 · 순자 세 인물을 대표적으로 살펴보고, 유가 이론과 관련된 인물들을 함께 묶어서 기타 인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주제별 분류에서는 첫째 경학 사상, 둘째 철학, 셋째 정치 및 경제, 넷째 교육, 다섯째 기타로 분류하였다.

2. 인물별 분류

전체 82편의 논문 중에서 인물과 관련된 주제를 발표한 논문은 모두 47편

이다. 인물별로 보면, ①공자: 18편, ②맹자: 18편, ③순자: 7편, ④기타 인물: 4편이다. 선진 유가를 대표하는 공자 · 맹자 · 순자와 관련된 논문이 43편이고, 기타 인물은 한대(漢代)의 유가 사상가로서 동중서(董仲舒) · 왕충(王充) · 정현(鄭玄) 등이 관련된 논문은 4편이 있다. 2022년도 인물별 전체 논문의 편수는 47편으로 2020년도 57편보다는 소폭 줄었으나, 2021년도 50편과는 거의 비슷하다. 2022년도 공자 관련 논문은 2021년도 19편에 비해 18편으로 비슷하고, 맹자 관련 논문도 2021년도에 17편과 비슷한 18편이다. 순자 관련 논문은 2021년도에 7편과 동일하다.

한대(漢代)의 유가 사상에 관한 논문은 2021년도는 7편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4편으로 소폭 줄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2022년도에는 공자 · 맹자 · 순자에 관한 연구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어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요한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금년에는 동중서, 왕충, 정현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전년도 연구 대상이었던 양옹 · 왕필 · 하안 · 공영달이 보이지 않아 한대(漢代) 사상에 관한 연구는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1) 공자 관련 논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송현달	『論語』에 있어서의 '인간다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학교
2	지준호	『논어(論語)』의 덕(德) 개념과 군자(君子)의 인격(人格)	유교사상문화연구 89	한국유교학회
3	지준호	『논어(論語)』의 덕(德)과 실천적 덕(德) 교육	한국철학논집 75	한국철학사연구회
4	조장연 지준호	『논어(論語)』의 덕(德)과 도(道) · 인(仁) · 예(藝)	동방문화와 사상 13	동양학연구소
5	류영하	『논어』 '직(直)'사상을 통해 본 복수의 정당성 연구	한국철학논집 74	한국철학사연구회
6	장준영	『논어(論語)』의 '내러티브' 구조 연구	동아시아고대학 67	동아시아고대학회
7	김정희	공자의 愬와 인정육구 고찰	동양철학연구 111	동양철학연구회
8	김정희	유가 철학의 인정육구 고찰 - 공자와 순자를 중심으로 -	인문학연구 64	인문학연구원
9	윤민향	공자 수양론에서 중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의 이상(理想)과 심신통합적 사유의 의미	유교사상문화연구 89	한국유교학회

10	황인지	보편적 복지와 공자의 정치관 - 대동사회론을 중심으로 -	유학연구 58	유학연구소
11	이주강	공맹의 즐거움과 음악, 그리고 여민동락	퇴계학논집 31	영남퇴계학연구원
12	박진우	우정의 역설에 빠진 고독한 현자 구하기 - 『논어』가 제시하는 친구 사귀 원칙의 재해석 -	유교사상문화연구 89	한국유교학회
13	김용희	『논어』 속 향원(鄉原)에 대한 이상심리학적 해석 : 내현적 자기에 (covert narcissism)를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103	한국동서철학회
14	김희영	『논어』 경문의 제주석(諸註釋)을 통해 본 '군자'에 관한 해석 양상 - 정수덕의 『논어집석』을 중심으로 -	유학연구 61	유학연구소
15	김병준	司馬遷의 비판적 『論語』 읽기와 그 서사 - 一學而篇 '有子曰'의 사례	대동문화연구 117	대동문화연구원
16	유영옥	『논어』 攻乎異端장 고찰 - 조선후기 諸說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17	대동문화연구원
17	박성규	주자의 『논어』 일관총서(一貫忠恕) 해설과 옹화미소(拈花微笑) 구도	태동고전연구 49	태동고전연구소
18	권준섭 유현우	孔子的 君子小人之辨에 관한 연구	올곡학연구 49	올곡학회

2022년도의 공자 및 『논어』 관련 논문은 모두 18편이다. 2020년도 24편, 2021년도 19편에 비하면 적은 편수이지만 20편 내외의 편수를 유지하고 있다. 박사논문은 2020년도 1편이 나왔고, 2021년도에 1편도 없었으나, 2022년도에는 1편이 발표되었다.

송현달의 박사논문은 『논어』를 통해 공자가 주장하고 있는 ‘인간다움’에 대해 밝히고 있다. 필자는 『논어』에 나타난 개인이 갖추어야 할 ‘인간다움’에 관한 연구를 위해 첫째, ‘인간다움’에 관해 공자가 인생의 목표로 삼은 도란 무엇인가?, 둘째, 공자의 군자론은 어떠한 의미와 성격을 지니는가? 셋째, 공자가 제시하고 있는 인간의 완성을 위한 덕목체계 즉, 예·인·의는 어떠한 의미와 특성을 지니면서 상호 일관된 체계를 이루고 있는가?”라는 점을 고찰했다.

일반논문은 모두 17편인데, 다양한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지준호는 『논어』의 덕과 관련하여 3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중에 『논어』의 덕과 실천적 덕교육’의 논문에서는 덕의 의미와 구조를 『논어』 원전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유덕자(有德者)인 군자의 인격과 관련하여 유학의 실천적 덕목

이 표방하는 의미를 조명했다. 『논어』의 실천적 덕목은 가치체계와도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따라서 『논어』의 덕이 표방하는 의미와 구조를 탐구하는 것은 현재 도덕과 교육의 원론적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고 도덕과 교육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는 연구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류영하의 논문은 『논어』 ‘직(直)’ 사상을 통하여 ‘복수(復讎)’의 정당성을 고찰하였다. 필자는 ‘직’을 ‘직관적 충위’와 ‘행위적 충위’로 개념을 나누어보고 『논어』를 바탕으로 유교 복수의 문제를 탐구했다.

장준영의 논문은 ‘내러티브’ 관점에서 『논어』의 언어와 내용을 포함한 구조적 특성들을 고찰했다. 필자는 언어의 미니멀리즘 내러티브, 인물 ‘각화(刻畫)’ 내러티브, 생활 철학 내러티브 이렇게 세 가지 대주제로 나누어 분석했다. 고전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텍스트 『논어』를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여 ‘내러티브’적 관점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다소 과감하고 실험적인 시도이기는 하나 앞으로의 고전 텍스트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나머지 논문들은 『논어』 경학의 측면과 군자에 관한 해석, 정치관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어서 추후 공자 관련 연구의 지속적인 활성화가 기대된다.

2) 맹자 관련 논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혜수	맹자의 '권(權)' 개념에 대한 도덕 철학적 분석	양명학 67	한국양명학회
2	김용훈 최영진	'求放心'에서 '心要放'으로 - 孟子 '求放心'의 일본적 변용 -	울곡학연구 48	울곡학회
3	송윤우	맹자 본성론에서 도덕적 동기와 책임의 문제	철학사상 84	철학사상연구소
4	변은미	懸吐를 활용한 『孟子』 해석 논의 고찰 -星湖 李瀾의 『孟子疾書』와 順庵 安鼎福의 『經書疑義』를 중심으로 -	어문논집 95	민족어문학회
5	이해임	영조대 『맹자』 경언의 정황과 맹자에 대한 인식 고찰	동양철학 58	한국동양철학회
6	이장희	임록문과 맹자	한국철학논집73	한국철학사연구회
7	김기주	諸子百家에 대한 비판에서 본 孟자의 좌표	동아인문학 61	동아인문학회

8	탁희진	내면 표현을 위한 맹자 지언(知言)의 치유적 모색 - 선택적 함구증을 대상으로 -	인문과학 87	인문학연구원
9	이순미	『맹자』의 의전(義戰)과 무의전(無義戰) 연구	동양철학연구110	동양철학연구회
10	이순미	『맹자』의 리민(利民)과 여민(與民), 독락(獨樂)과 동락(同樂) 연구	동양철학연구109	동양철학연구회
11	안유경	맹자의 기론(氣論)과 율곡 성리학의 연관성 고찰	한국학 45	한국학중앙연구원
12	유민정	이토 진사이(伊藤仁齋)의 修辭學的 經典解釋 - 『孟子古義』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119	대동문화연구원
13	김선희	『맹자』의 부동심 논의에서 도덕성의 신체화와 정약옹의 재해석	다산학 41	다산학술문화재단
14	김 희	『주역』의 형세론에 기초한 맹자와 율곡의 역사인식 연구	율곡학연구 49	율곡학회
15	김백영 이경무	맹자의 성선(性善)과 순자의 위선(僞善)에 대한 다원주의적 통합	동서철학연구106	한국동서철학회
16	정우엽	시비지심의 이성적 성격에 대하여 -지(知)개념을 중심으로	철학탐구 67	중앙철학연구소
17	이진영	『주역』 수지 비괘(水地比卦 ䷇)와 맹자 왕도 정치론의 관련성 연구 - 『주역전의대전(周易傳義大全)』을 중심으로 -	유교사상문화연구 89	한국유교학회
18	이광혁	『맹자』 민본(民本)사상과 현대적 의의	중국학 81	대한중국학회

2022년도 맹자 및 『맹자』 관련 논문은 모두 18편이다. 2020년과 2021년은 동일하게 17편, 2022년도에는 18편으로 전년과 비슷한 편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박사 논문은 2020년 2편, 2021년에 3편이 발표되었으나, 2022년도에는 박사논문이 1편도 없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김기주의 논문은 맹자가 제자백가를 어떻게 평가하고 비판했는지를 통해, 그가 전국시대의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지를 분석했다. 이 논문은 제자백가에 대한 맹자의 비판을 중심으로 맹자 철학의 좌표를 이해하기 위해 시도한 점에서 의미 있는 논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맹자의 ‘정치’와 관련된 논문은 5편이고, 그중에 이순미의 논문은 『맹자』의 의전(義戰)과 무의전(無義戰)의 의미를 고찰하여 현재 각국의 갈등과 분쟁 해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분석했다. 특히 이진영의 논문은 『주역』 수지 비괘(水地比卦 ䷇)와 맹자 왕도 정치론의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탐색하여 수지 비괘에 제시된 과사와 효사의 의미와 역할을 맹자 왕도 정치론에 나타난 왕-신하-백성의 관계와 비교하여 고찰했다. 필자는 수지

비패와 맹자의 왕도 정치론에 대한 덕치의 관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주역』 비패와 맹자의 왕도정치 사상을 비교하여 기존에 볼 수 없는 독창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논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순자 관련논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덕화	『荀子』 群體論 研究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2	오 빈	순자 교육철학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3	배다빈	중국 유학사 속 순자 철학의 변증법적 역할과 특징	철학논총 107	새한철학회
4	배다빈	荀子 인성론과 도덕 기원론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양철학연구 109	동양철학연구회
5	김여진	순자가 이질적인 것을 다루는 방식 - 「成相」 과 「賦」 를 사례로 들어 -	유교사상문화연구 87	한국유교학회
6	이경무	類개념에 대한 荀子の 인식과 활용	동방문화와 사상12	동양학연구소
7	문순표	순자와 아리스토텔레스: '지(知)'의 종의적 사용에 대한 한 해석	공자학 48	한국공자학회

2022년도 순자 및 『순자』 관련 논문은 모두 7편으로, 2020년도 8편, 2021년도 7편과 비슷한 논문의 수를 유지하고 있다. 박사논문은 2020년에 1편도 없었으나, 2021년도에는 1편이 발표되었고, 금년에는 박사논문이 2편이나 나와서 향후 이 분야 연구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김덕화의 박사논문은 『순자』의 철학을 ‘군체(群體)’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그 의미를 고찰했다. 이 논문은 『순자』에 나타나는 여러 단계의 군체를 분석하면서 최종적으로 정치적 형태의 군체인 국가와 천하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필자는 『순자』 텍스트의 내용을 토대로 그의 철학이 인간의 생존과 군체의 유지를 목적으로 형성된 것임을 세 가지로 밝히고 있다. 이 논문은 『순자』 텍스트 속에 이와 같은 논증들을 관통하는 개념으로 ‘군체’를 설정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것은 유가 사상의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배다빈의 논문 두 편 중에 「순자 인성론과 도덕 기원론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의 논문은 유학사 속에서 순자 비판을 둘러싸고 지적된 한 가지 문제, 즉 순자의 성악론과 성인의 도덕 기원론의 모순 관계 및 이로부터 도출되는 도덕 규범의 정당성 여부를 철학적으로 비판·해명하여 밝히고 있다. 문순표의 논문은 순자의 ‘능’ 과 ‘지’ 에 대한 중의적 사용을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능태/현실태의 범주로 해석하려고 시도를 한 점에서 추후 순자 관련 연구의 지속적인 활성화가 기대된다.

4) 기타 인물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중희	董仲舒의 『論語』 활용과 그 의미 — 天人三策 분석을 중심으로 —	중국고중세사연구 65	중국고중세사학회
2	조원일	王充의 형신사상 대한 연구	중국학논총 74	한국중국문화학회
3	석미현	『논형』의 천인불감응론(天人不感應論)에 대한 고찰	동양학 89	동양학연구원
4	조혜진	정현(鄭玄) 『箋』의 정변(正變)論 小考 - 『毛傳』 과 비교	중국학 79	대한중국학회

2022년도 기타 인물과 관련된 논문은 4편이다. 2020년 8편, 2021년 7편에 비하면 적은 편수이다. 박사논문은 2020년, 2021년도 각각 1편이 꾸준히 발표되었으나, 금년에는 박사논문이 1편도 없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2020년에는 여러 학자들이 다각적인 시각에서 공영달, 왕충, 양웅, 환담, 정현, 왕부, 동중서 등 한(漢)·당(唐)의 다양한 사상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2021년도에도 공영달, 왕충, 양웅, 정현, 왕필, 하안, 동중서 등 주요한 사상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2022년도에는 왕충, 정현, 동중서 등의 관련 연구로 한정되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석미현의 논문은 『논형』의 천인분리론적 특징을 살펴보고 순자의 천인분리론과 구분하여 ‘천인불감응론’으로 규정할 수 있음을 분석했다. 필자는 왕충의 『논형』이 순자의 천인분리론을 계승하면서도 당시에 만연하였던 천인감응론의 허황함을 비판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했으며, 이러한 비판적 사유를 잘 드러내 주는 ‘천인불감응론’으로 『논형』의 천인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조원일의 논문은 왕충의 형신 관계에 대한 분석과 비유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 논문에서 왕충이 형체는 주체가 되고 정신이 종속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형신관계의 논증을 형체와 정기 및 지각 삼자의 관계로 보면서 정신은 형체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 논문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개척이라는 자세로 왕충의 형신 사상에 대한 분석과 비유를 중심으로 논의한 점에서 의미 있는 논문으로 평가된다.

3. 주제별 분류

주제별 분류는 ①경학 사상 7편 ② 철학 49편 ③ 교육 3편 ④ 정치 및 경제 13편 ⑤ 기타 10편이다. 전년도 대비 조사 대상 전체 논문이 72편에서 82편으로 소폭 늘었다. 2022년도 철학사상, 정치 및 경제, 기타 분야는 전년도보다 소폭 늘었고, 경학 사상은 전년도와 비슷하나, 교육은 5편에서 3편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경학 사상 분야에서는 『논어』 2편, 『맹자』 2편, 『고문상서』 1편, 정현(鄭玄) 『전(箋)』 1편 등이 있다. 경학 분야의 논문에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출토문헌 관련 연구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2022년도 철학연구 분야에서 주목할 점은 『주역』 관련 박사논문이 2편이고 일반논문은 11편이나 발표되었다. 전년도에 이어 꾸준히 역학 분야에 관한 연구성과가 축적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선진 유가의 의리지변(義利之辨)과 군자관에 관한 박사 논문이 각각 1편이 발표되어 앞으로 선진시기 철학사상의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연구 분야에서는 유가 예악사상의 도덕 교육과 순자 교육철학에 관한 박사 논문이 2편이나 발표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금년도 정치 분야 연구에서 『서경』, 『주역』, 『춘추』, 『공양전』 등의 정치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어 이 분야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 경학사상 연구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희영	『논어』 경문의 제주석(諸註釋)을 통해 본 '군자'에 관한 해석 양상 - 정수덕의 『논어집석』을 중심으로 -	유학연구 61	유학연구소
2	유영옥	『논어』 攻乎異端장 고찰 - 조선 후기 諸說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17	대동문화연구원
3	변은미	懸念을 활용한 『孟子』 해석 논의 고찰 - 星湖 李翼의 『孟子疾書』와 順庵 安鼎福의 『經書疑義』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95	민족어문학회
4	유민정	이토 진사이(伊藤仁齋)의 修辭學的 經典解釋 - 《孟子古義》를 중심으로 -	대동문화연구 119	대동문화연구원
5	조혜진	정현(鄭玄) 『箋』의 정변(正變)論 小考 - 『毛傳』 과 비교 -	중국학 79	대한중국학회
6	원용준	곽점초간 오행(五行) 을 통해 본 고대 유가 사상의 전개 양상	유교사상문화연구 90	한국유교학회
7	민혜영	石泉 申緯의 『古文尙書』 에 대한 견해 연구	南冥學研究 75	경남문화연구원

2022년도 경학사상 분야의 연구는 7편으로, 2020년 16편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지만 2021년도 8편과는 비슷한 논문의 수를 유지하고 있다. 2021년도에 『논어』, 『맹자』, 『주역』, 『서경』 등의 분야에서 꾸준히 경학연구 성과가 많이 축적되어 연구의 내용도 더욱 심도 있는 분석으로 진행되었으나, 금년에는 『논어』, 『맹자』, 정현(鄭玄) 『전(箋)』의 발표로 한정된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유영옥의 논문은 공호이단(攻乎異端)장에 관련된 고주(古註)와 신주(新註) 및 조선 후기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살펴, ‘공(攻)’ 과 ‘이(己)’ 의 해석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그와 연계하여 공자가 당시에 지목한 이단이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고찰했다. 「위정」편 16장은 ‘공(攻)’ 과 ‘이(己)’ 자를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혹은 ‘이단’ 을 무엇으로 규정하든지 간에 누구에게나 반론없는 명쾌한 해석으로 인정받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선유(先儒)들의 여러 견해를 통해 부사도(扶斯道) 벽이단(闢異端)의 의미를 다각도로 조명하여 상세히 분석한 점에서 이 논문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원용준의 논문은 1993년 출토된 곽점초간 오행을 중심 텍스트로 삼고, 1973년 출토된 마왕퇴 백서 오행을 보조 텍스트로 삼아 전국시대 중기에서

전한 초기에 이르는 시기의 유가사상의 전개 양상의 일면을 탐구했다. 필자는 작년에 마왕퇴백서 『주역』을 현행본 『주역』 및 기타 문헌 자료들과 비교·고찰하였고, 금년에는 괘점초간 오행(五行)을 통해 본 고대 유가사상의 전개 양상을 분석한 점에서 향후 이 분야의 연구가 지속 발전될 것이 기대된다.

민혜영의 논문은 석천(石泉) 신작(申綽)의 『서차고(書次故)』 중 『고문상서』에 대한 의견을 드러낸 『상서이십오편』을 주요 연구 텍스트로 삼아, 그의 문집 등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충하여 분석함으로써, 『고문상서』 25편에 대한 그의 견해를 자세히 고찰했다. 『논어』, 『맹자』, 『고문상서』 등의 분야에서 꾸준히 경학연구가 축적되어 심도 있는 분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2) 철학 연구 분야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정석	『주역』 덕(德) 사상과 삼진구덕괘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	이희영	『주역(周易)』의 시중(時中) 리더십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3	김연수	中國哲學의 義利之辨에 관한 연구 - 儒家의 義利之辨을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4	장 양	중국 고대 君子觀의 형성과 변화 연구 - 先秦 시기 학파별 관점과 시대별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5	송현달	『論語』에 있어서의 '인간다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학교
6	김덕화	『荀子』 群體論 研究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7	신정원	『주역(周易)』 점서(占筮)에 대한 원시 점술 문화적 고찰	태동고전연구 49	태동고전연구소
8	황병기	『주역』의 종교성이 갖는 현대적 의미 - 다산역학의 종교학적 해석을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112	동양철학연구회
9	고운숙	'따름[隨, 從]'을 통한 관계 맺기에 관하여 - 『주역』 수괘(隨卦)를 중심으로 -	한국철학논집(74)	한국철학사연구회
10	정석현	『주역』에 있어서 음양의 특징과 그 구분	대동철학 100	대동철학회
11	김연재	『易緯』의 太易元氣觀과 取象運數의 선형주의적 세계관	철학논총 109	새한철학회
12	김연재	우한의 서사에서 본 『주역』의 역도와 성인사관 - 서사주의의 역사콘텐츠 -	동방학 46	동양고전연구소
13	이난희	『주역』괘점에 대한 고찰: 중(中)개념과 연관하여	人文學研究 38	인문학연구소
14	유병현 임병학	『繫辭上』 제8장과 言 行의 易哲學의 의미	인문학연구 61	인문과학연구소

15	김 희	『주역』의 형세론에 기초한 맹자와 율곡의 역사인식 연구	율곡학연구 49	율곡학회
16	이난숙	역학평가의 준거, 성인사도인 辭變象占 연구	율곡학연구 50	율곡학회
17	박구선 최정준	음양의 대립과 통일에 관한 인문학적 고찰 -역과 사물의 상관성에 대한 사유를 중심으로 -	동양문화연구 36	동양문화연구원
18	손태호	초기 유가의 자유지향경향성에 관한 시론(試論)	동양철학연구 112	동양철학연구회
19	임병식	『예기』에 나타난 생사관 특성 고찰	철학사상 84	철학사상연구소
20	지준호	“사서(四書)”의 용례를 통해 본 대덕(大德)의 구조와 의미	온지논총 73	온지학회
21	임종진	四書에서 絜와 明의 사용 양상	철학논총 109	새한철학회
22	임현규	四書의 심성론적 연구	온지논총 71	온지학회
23	장상량	위료옹(魏了翁)의 춘추학(春秋學) 사상 특징에 관한 고찰 - 『춘추좌전오의(春秋左傳要義)』를 중심으로 -	인문연구 101	인문과학연구소
24	김정희	공자의 愆와 인정육구 고찰	동양철학연구 111	동양철학연구회
25	윤민향	공자 수양론에서 중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의 이상(理想)과 심신통합적 사유의 의미	유교사상문화연구 89	한국유교학회
26	지준호	『논어(論語)』의 덕(德) 개념과 군자(君子)의 인격(人格)	유교사상문화연구 89	한국유교학회
27	지준호	『논어(論語)』의 덕(德)과 실천적 덕(德)교육	한국철학논집 75	한국철학사연구회
28	조장연 지준호	『논어(論語)』의 덕(德)과 도(道)·인(仁)·예(藝)	동방문화와 사상 13	동양학연구소
29	이주강	공맹의 즐거움과 음악, 그리고 여민동락	퇴계학논집 31	영남퇴계학연구원
30	김병준	司馬遷의 비판적 『論語』 읽기와 그 서사 - 學而篇 ‘有子曰’의 사례 -	대동문화연구 117	대동문화연구원
31	류영하	『논어』 ‘직(直)’사상을 통해 본 복수의 정당성 연구	한국철학논집 74	한국철학사연구회
32	박성규	주자의 『논어』 일관충서(一貫忠恕) 해설과 염화미소(拈花微笑) 구도	태동고전연구 49	태동고전연구소
33	권준섭 유흔우	孔자의 君子小人之辨에 관한 연구	율곡학연구 49	율곡학회
34	김혜수	맹자의 ‘권(權)’ 개념에 대한 도덕 철학적 분석	양명학 67	한국양명학회
35	송윤우	맹자 본성론에서 도덕적 동기와 책임의 문제	철학사상 84	철학사상연구소
36	이장희	임눅문과 맹자	한국철학논집 73	한국철학사연구회
37	정우엽	시비지심의 이성적 성격에 대하여 - 지(知)개념을 중심으로 -	철학탐구 67	중앙철학연구소
38	김기주	諸子百家에 대한 비판에서 본 孟子의 좌표	동아인문학 61	동아인문학회
39	안유경	맹자의 기론(氣論)과 율곡 성리학의 연관성 고찰	한국학 45	한국학중앙연구원
40	김선희	『맹자』의 부동심 논의에서 도덕성의 신체화와 정약옹의 재해석	다산학 41	다산학술문화재단
41	김 희	『주역』의 형세론에 기초한 맹자와 율곡의 역사인식 연구	율곡학연구 49	율곡학회
42	김백녕	맹자의 성선(性善)과 순자의 위선(僞善)에 대한	동서철학연구 106	한국동서철학회

	이경무	다원주의적 통합		
43	이경무	類개념에 대한 荀子の 인식과 활용	동방문화와 사상 12	동양학연구소
44	배다빈	중국 유학사 속 순자 철학의 변증법적 역할과 특징	철학논총 107	새한철학회
45	배다빈	荀子 인성론과 도덕 기원론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양철학연구 109	동양철학연구회
46	김여진	순자가 이질적인 것을 다루는 방식 - 「成相」과 「賦」를 사례로 들어 -	유교사상문화연구 87	한국유교학회
47	김종희	董仲舒의 『論語』 활용과 그 의미 - 天人三策 분석을 중심으로 -	중국고중세사연구 65	중국고중세사학회
48	조원일	王充의 형신사상 대한 연구	중국학논총 74	한국중국문화학회
49	석미현	『논형』의 천인불감응론(天人不感應論)에 대한 고찰	동양학 89	동양학연구원

2022년도 철학연구 분야는 모두 49편이다. 2020년도 46편, 2021년도 41편과 비슷한 수준이다. 2020년도에는 『주역』 관련 논문이 6편, 2021년도 10편, 2022년에도 13편이나 많은 논문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다. 특히 철학사상 분야의 박사논문이 6편인데 『주역』 관련 논문이 2편, 일반논문은 11편이 나와서 향후 『주역』 관련 분야 연구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나머지 논문은 공자 · 맹자 · 순자와 관련된 논문 등과 동중서 · 왕충의 유학에 관한 다양한 연구 논문이 포함되어, 논의의 내용이 전년에 비교해 확대된 점이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희영의 박사논문에서는 『주역』이 함축하고 있는 심오하고도 핵심적인 지혜인 시중(時中)을 리더십 측면에서 고찰했다. 이 논문은 『주역』의 시중을 리더십 측면에서 다룬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연구이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나 정합성을 입증함에 있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향후 시중 리더십 측면에서 다루는 연구에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논문 중에서 김연재의 논문은 패효사의 내용을 서사주의의 역사 콘텐츠적 맥락에서 접근하여, 패효사의 내용에 담긴 성인의 역사적 기억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성인이 인식과 실천의 지속 가능한 과정에서 살아가는 역사적 서사의 이야기를 연구했다. 필자는 『주역』의 역사적 서사의 이야기

속에서 성인 정신의 경계를 이해하고 자아실현의 이정표를 밝히고 있다.

임헌규의 논문은 “ ‘사서(四書)’ 란 문명사적으로 볼 때, 어떤 성격의 책이며, 어떤 관점으로 접근할 때, 그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가?” 라는 점에 대해 하나의 제안을 했다. 필자는 “ ‘사서’ 란 인간에 근본을 두고, 금수와 구별되는 인간의 본성을 정립하여, 인간의 길을 개척함으로써 인문사회를 구현할 방도를 제안한 체계이며, 따라서 ‘사서’ 란 심성론(인성론)으로 접근할 때 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다.” 라는 점을 제시했다. 임병식의 논문은 『예기』에 나타난 생사관의 특성을 고찰하고, 이를 매개로 삶과 죽음에 대한 유학의 근본적인 세계관과 견해를 살펴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의 현재적 삶의 자세와 태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했다.

3) 교육 분야 연구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하가영	儒家 禮樂思想의 도덕교육적 의미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	오 빈	순자교육철학연구	박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3	임병학	『周易』 蠱卦의 인문적 해석과 교육적 의미	용봉인문논총 61	인문학연구소

2022년 교육 분야의 연구는 3편으로, 2020년 7편, 2021년도 5편 보다는 소폭 줄었다. 2021년도에는 순자 악론(樂論)의 교육적 함의, 공자와 목자 사상의 도덕교육, 『맹자』의 교육관, 동중서(董仲舒)의 교육사상을 다룬 논문들이었다. 금년에는 유가 예악사상의 도덕 교육과 순자 교육철학에 관한 박사논문 2편과 『주역』과 관련된 논문들이다.

하가영의 박사논문은 거시적인 문화 발전의 차원에서 예악 문화의 맥락을 고찰하고 그것을 통해 미시적 관점에서 공자의 예악 교육을 분석했다. 이 논문은 공자가 예(禮)와 악(樂)을 결합시켜 시행한 자연도덕정감의 교육은 예술의 형식을 통해 순수한 도덕적 정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며, 자연도덕행위의 교육은 인(仁)을 기반으로 하여 서(恕), 신(信)의 방식을 통해 행실을 수양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오빈의 박사논문은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순자의 교육철학에 접근하여 모색했다. 첫째, 의리(義理)의 측면이다. 둘째, 교화(敎化)의 측면이다. 셋째, 비판적 측면이다. 넷째, 가치의 측면이다. 이 논문은 교육철학을 접점으로 하여 순자와 그의 사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연구하여, 현재 학계의 연구에 폭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자들에게도 참고적 가치를 제공하려고 시도하였다.

4) 정치 및 경제 분야 연구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홍 린	현대 한국인의 “예의(禮儀)” 인식과 선진시기 예(禮)의 정치적 함의	孔子學 47	한국공자학회
2	강강현	조선시대 경연에서 『서경』 「우공」 편 강독의 의미	孔子學 48	한국공자학회
3	김성실	유교 고대 성왕론에 대한 재해석	퇴계학논집 31	영남퇴계학연구원
4	이경구	정조의 『춘추』 이해와 정치적 활용	태동고전연구48	태동고전연구소
5	이승률	아누스의 얼굴을 지닌 최초의 유가 - 마왕퇴백서 『주역』 「목화」 편의 정치철학 -	철학연구 163	대한철학회
6	황인지	보편적 복지와 공자의 정치관 - 대동사회론을 중심으로 In -	유학연구 58	유학연구소
7	이진영	『주역』 수지 비괘(水地比卦 比)와 맹자 왕도 정치론의 관련성 연구 - 『주역전의대전(周易傳義大全)』 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89	한국유교학회
8	이광혁	『맹자』 민본(民本)사상과 현대적 의미	중국학 81	대한중국학회
9	이순미	『맹자』 의 의전(義戰)과 무의전(無義戰) 연구	동양철학연구 110	동양철학연구회
10	이순미	『맹자』 의 리민(利民)과 여민(與民), 독락(獨樂)과 동락(同樂) 연구	동양철학연구 109	동양철학연구회
11	이해임	영조대 『맹자』 경연의 정황과 맹자에 대한 인식 고찰	동양철학 58	한국동양철학회
12	정희철	고대 유가(儒家)의 형정론(刑政論)에서 ‘수치심(恥)’의 의미	유학연구 59	유학연구소
13	김동민	『공양전(公羊傳)』 화이관(華夷觀)의 이중적 구조와 그 특징	유교사상문화연구 87	한국유교학회

2022년도의 정치 및 경제 분야의 연구는 모두 13편으로, 2020년도의 17편, 2021년도 12편과 비슷한 편수를 유지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2022년도에도 경제 분야가 1편도 없어 균형을 맞추지 못한 점이 아쉽다.

김동민의 논문은 화이관에 포함된 두 가지 입장, 즉 대일통을 위해 이적

을 교화의 대상으로 여기고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적을 배척의 대상으로 삼는 양이(攘夷)도 화이관의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는 방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이론 구조를 밝히고 있다. 이 논문은 『공양전』 화이관의 독창적인 성격과 그 특징을 밝힌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라고 평가한다.

이승률의 논문에서는 ‘종도(從道)이면서 ‘종군(從君)’이라는 『주역』 「목화」 편의 야누스적인 특징을 ‘정치의 요체’, ‘정치의 주체’, ‘군신관계’ 라는 관점에서 살피고, 유가 내부에서 이편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순자 정치철학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했다. 이 논문은 「목화」 편이 유가 정치철학과 다른 특징은 무엇이고 독창적인 주장은 무엇인지, 그런 특징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수행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5) 기타연구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경애	『周易』 과 自己治癒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2	니종석	유가의 인(仁) 개념과 돌봄의 자유관	孔子學 47	한국공자학회
3	윤서민	주역의 효체와 효위에 대한 新釋 - 이동성과 부동성을 중심으로 -	동양철학 58	한국동양철학회
4	장준영	『논어(論語)』 의 ‘내러티브’ 구조 연구	동아시아고대학 67	동아시아고대학회
5	문순표	순자와 아리스토텔레스 -‘지(知)’의 종의적 사용에 대한 한 해석 -	孔子學 48	한국공자학회
6	김용희	『논어』 속 향원(嚮原)에 대한 이상심리학적 해석 - 내현적자기애(covert narcissism)를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103	한국동서철학회
7	박진우	우정의 역설에 빠진 고독한 현자 구하기 - 『논어』 가 제시하는 친구 사귄 원칙의 재해석 -	유교사상문화연구 89	한국유교학회
8	김용훈 최영진	‘求放心’에서 ‘心要放’으로 - 孟子 ‘求放心’의 일본적 변용	을곡학연구 48	을곡학회
9	탁희진	내면 표현을 위한 맹자 지언(知言)의 치유적 모색 - 선택적 함구증을 대상으로	인문과학 87	인문학연구원
10	최승현	『주역』 철학사상과 양자역학 철학적개념의 유사성 고찰 - 『주역』 철학사상의 과학성 傍證 -	동아인문학 59	동아인문학회

2022년도 기타 연구 분야는 10편으로, 2020년도 9편, 2021년도 6편보다는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특히 금년에는 박사논문 1편이 발표되어 주목할 만하다.

박경애의 박사논문은 『주역』이 지닌 자기치유적 의미를 고찰했다. 필자는 『주역』의 성격을 전반적으로 자기치유에 적용하고, 쾌효사와 자기치유의 연관성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주역』의 자기 치유적 의의를 탐구했다. 기존 『주역』의 치유적 의의에 관한 연구는 ‘우환의식’과 ‘『주역』의 인간관’과의 관계에서 도출하는 단면적 연구였으나, 이 논문은 『주역』과 자기치유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함께 구체적으로 쾌사와 효사의 예를 다양하게 분석했다.

나중석의 논문은 유가의 인(仁) 이론이 돌봄의 자유론이자 돌봄의 자유주의로 재해석될 가능성을 보여주려고 시도했다. 이 논문은 돌봄의 관점에서 재해석된 유학적인 인(仁) 이론이 새로운 형태의 자유론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융복합적인 성격을 띤 논문으로 유교 경전 연구의 외연 확장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이상에서 인물과 주제로 나누어 논문들을 분류하고, 각 영역별 논문의 주요한 특징과 대표 논문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기록된 82편의 논문은 모두 연구자들의 전공 지식과 역량이 집중한 소중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각 연구자들의 업적이며 동시에 한국 학술계의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논문 2편을 선별하여 그 논문에 대한 분석과 학술적 의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박사논문 중에서 이정석의 논문은 『주역』 덕 사상과 삼진구덕괘(三陳九德卦)를 연구하는 것을 통하여 『주역』에서 말하는 자기완성, 즉 덕을 닦고 함양함으로써 인간 자신의 존재 원리를 구현하는 데 이르는 논리와 구조, 방법을 밝히고 있다. 필자는 『주역』 덕 사상의 구체적인 전개 양상을 살필

수 있는 대표적 사례가 삼진구덕괘라고 보고, 그것이 우환의식(憂患意識)을 바탕으로 한 덕을 이루는 ‘성덕체계(成德體系)’임을 논증하고, 나아가 『주역』의 ‘덕을 완성하는 방법론[成德論]’을 탐구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성덕론은 모두 3단계인데, 진덕론(進德論)은 덕의 기본적 자질을 쌓는 단계에 대한 논의로, 예절과 겸손, 그리고 반본(反本)의 괘인 이괘(履卦), 겸괘(謙卦) 및 복괘(復卦)를 다루었다. 육덕론(育德論)은 기초적인 덕성을 바탕으로 계속하여 덕을 닦고 확충하는 단계에 관하여, 항괘(恒卦), 손괘(損卦), 익괘(益卦)의 덕목과 성질, 쓰임 등을 검토했다. 덕을 완성하는 데 유효한 괘인 곤괘(困卦), 정괘(井卦), 손괘(巽卦)는 참된 덕을 변별하고, 작위(作爲)하지 않고도 덕화(德化)하며, 만사에 시중(時中)할 수 있는 덕성을 지녔으므로 성덕의 관건이 되는 괘로 보았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주역』의 덕 사상은 “천지의 덕을 본받아 성덕(盛德)을 이루고, 천지와 그 덕을 합하여 만물 화육에 동참하는 것”이며, ‘생명 제일’인 『주역』의 덕 사상을 통해, 개인의 자아 완성과 더불어 사회와 국가, 나아가 우주 만물이 함께 ‘생생(生生)’하는 공동체 건설이 인류의 이상이 되어야 함을 고찰했다.

필자도 지적한 이 논문의 제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주역』의 ‘덕’에 대해 그 정초 과정과 연원을 밝히고, 삼진구덕괘의 구조와 의미 분석을 통해서 『주역』 덕 사상의 전모를 살폈으나, 『주역』의 수양론(修養論) 전반을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구덕괘에 대한 이해도 문면(文面) 분석에만 그쳤을 뿐, 심층 분석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감이 있다.

둘째, 본 논문은 시기적으로 선진(先秦)시대에 한정된 논의라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덕’의 개념은 그 뒤 계속 확장 심화하였고, 현재에도 널리 쓰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편 공간적으로도 다루고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다. 당초에 『주역』의 덕으로 범위를 한정하긴 했으나, 덕 윤리 논의에 대한 입장도 밝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본다.

셋째, 『주역』의 덕 사상을 응용,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없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를 치유하고, 인류 장애

의 지속적 발전의 토대로 삼을 보편윤리의 수립이 긴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지금, ‘생명철학’ 으로서의 『주역』 덕 사상이 기여할 공간이 분명 있을 법하다. “생명 중심적 평등의 원리를 바탕으로 인간의 자아실현의 방향을 자연 만물의 존재적 일체감에서 찾는 근본 생태주의의 관점” 에서 보더라도, 『주역』 덕 사상의 역할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논문은 『주역』 수양론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필요한 기초작업을 수행하였다는 데 의미 있는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일반 논문은 김혜수의 「맹자의 ‘권(權)’ 개념에 대한 도덕 철학적 분석」이다. 이 논문은 맹자의 도덕철학에서 ‘권(權)’ 개념이 제기된 배경과 그 맥락을 통해 기존의 시각과 다른 시각으로 ‘권’의 도덕적 의미를 분석한 연구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맹자의 ‘권’을 일반적 상황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불변의 상법(常法)으로서 ‘예(禮)’ 또는 ‘경(經)’ 과 대비되고, 특수적 상황에서 임기응변할 수 있는 변칙적인 편법의 수단 및 방법을 인정하는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는 행위 결정의 도구적(수단적) 가치로 여겼다. 하지만 필자는 맹자의 도덕 이론과 ‘권’ 개념이 언급된 배경 및 그 맥락을 파악하면, ‘권’ 개념은 그 자체로 도덕적 마음이 항상 그 당면한 상황에 부합하게 발휘된 도덕의 본질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도(道)’의 정신과 일치한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필자는 도덕 실천 주체인 마음이 자기의 도덕 명령에 따라 자발적이면서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도덕 자율성을 갖추면서 현실의 다양한 상황에 대응 및 대처하는 수단적 가치로서 도덕 행위의 규칙을 창조해낸다고 이해했다. 아울러 필자는 맹자의 ‘권’은 도덕적으로 불완전한 일반인의 도덕적 판단 및 행위 결정을 위한 기준이 아니라, 도덕 인격자에게 갖추어진 도덕 실현의 능력이라고 파악했다. 일반인은 ‘도’의 정신을 완벽하게 갖추지 않고서 ‘권’을 자신과 집단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수단적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권’의 본질적 가치를 온전히 실현할 수 없다. 도덕 인격자, 즉 성인이야말로 진정한 본질적 가치의 ‘권’을 실현할 수 있는데, 도덕적 딜레마와 같은 특수 또는 특정 상황에서도 도덕적 딜레마가 발생하지 않고 그 상황에 부합하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 필자는 이것이 바로 성인의 도덕 실현 능력인 ‘권’의 작동이라고 제시했다.

이 논문을 읽고 느낀 점을 질문하면 다음과 같다. 필자는 ‘권’ 개념의 본질적 가치 및 그 실현 의미라는 소제목에서 맹자의 ‘수닉원지이수(嫂溺援之以手)’라는 언급은 두 부분에 방점을 둘 수 있는데, 하나는 ‘수닉(嫂溺)’이고, 다른 하나는 ‘원지이수(援之以手)’라고 언급했다. 전자는 ‘권’의 본질적 가치에 초점을 두는 것이며, 후자는 ‘권’의 도구적 가치 또는 수단적 가치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맹자는 전자, ‘수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맹자의 도덕 이론, 이른바 성선설(性善說)과 직접 연계되는 부분으로, ‘유자입정(孺子入井)’ 고사의 상황과 같은 맥락이다. 필자는 사람이면 누구나 ‘불인인지심’을 갖춘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맹자가 제시한 ‘권’은 수단과 방법을 위한 도구적 가치가 아닌 그 자체로 본질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필자는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서도 그 특수한 상황을 적절하게 대응 또는 대처하기 위한 수단 및 방법으로써 ‘권’의 논리를 적용할 수 없으며, ‘권’의 논리는 사용하는 것이기보다는 그 자체로 도덕의 본질적 가치가 실현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맹자가 제시한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은 『맹자』 「공손추상」 ‘유자입정(孺子入井)’과 「양혜왕상」 ‘곡속장(穀棘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불인인지심’은 나와 이해관계가 없지만, 생명이 손상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는 선협적인 도덕심이다. 그러므로 주희는 “불인지심이 곧 측은지심이다.”라고 규정했다. 필자는 『맹자』 「공손추상」 17장에서 형수가 물에 빠진 ‘수닉(嫂溺)’의 상황 역시 ‘유자입정(孺子入井)’의 상황과 똑같다는 점을 제시하고, ‘수닉(嫂溺)’에 초점을 두고 ‘권’의 본질적 가치라고 했다. 그러나 물에 빠져 죽어가는 형수는 당연히 손을 내밀어 구해야 하지만 이 경우 불가피하게 ‘남녀수수불친’이라는 상례(常禮)를 범하게 되는 것과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면 모두 깜짝 놀라 측은지심을 갖게 되는 상황과 과연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 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맹자는 남녀가 직접 주고받지 않는 것은 예이며,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 구제하는 것은 권(權)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맹자는 물에 빠진 형수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권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은 천하를 구제할 정당한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그보다는 도가 더욱 합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필자가 ‘권’ 개념은 그 자체로 도덕적 마음이 항상 그 당면한 상황에 부합하게 발휘된 도덕의 본질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도(道)’의 정신과 일치한다고 제시한 점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 논문은 맹자의 ‘권’ 개념에 관한 연구 성과를 통하여,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향후 한대의 유학자들이 제시했던 ‘경’에는 반하지만 ‘도’에 합치한다는 ‘반경합도(反經合道)’의 ‘권’과 정이가 주장했던 ‘권’은 단지 ‘경’일 뿐이라는 ‘권지시경(權只是經)’, 그리고 주희의 ‘권’에 대한 관점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관점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은 기존 연구 성과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맹자 ‘권’ 개념의 도덕 철학적 의미를 분석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논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5. 평가와 전망

2022년도의 선진시대부터 한당 시대까지 국내의 유학 및 유교 관련 논문 편수는 모두 82편이다. 2020년도 95편, 2021년도 72편과 비교해보면 2020년도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전년도 보다는 소폭 늘었다. 시대별로는 전체 82편 중 선진시기가 총 78편, 진한시기 4편이다.

2022년도의 분석에서 주목할 점은 전체 논문의 수가 82편으로 전년도 보다는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공자와 맹자 관련 논문 그리고 철학 분야, 정치 분야, 기타 분야가 소폭 늘어 중진 학자들은 물론 신진 역할과 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석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인물별 분류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선진 유학을 대표하는 공자와 맹자, 순자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인물별 연구 특징은 2022년에는 공자에 관한 연구가 18편으로 꾸준히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18편 중 1편이 박사 논문이지만, 일반 논문은 공자의 도덕철학, ‘직(直)’ 사상을 통해 본 복수의 정당성, ‘내러티브’ 관점에서 『논어』 등을 다루고 있어서 융복합적인 성격을 띤 매우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맹자 관련 논문은 2022년도 18편으로 2021년도 17편과 비슷한 편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2021년에는 박사 논문이 3편이 발표되었으나, 2022년도에는 박사 논문이 1편도 없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일반 논문의 내용은 제자백가(諸子百家)에 대한 비판에서 본 맹자의 좌표와 맹자의 ‘정치’와 관련된 논문 5편이 발표되었다. 순자에 관한 연구가 2022년에 7편으로 전년도 7편과 동일하다. 2021년에는 박사 논문이 1편 발표되었으나, 2022년도에는 2편이 발표되어 향후 순자 분야 연구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일반논문의 내용은 순자 인성론과 도덕 기원론, 순자와 아리스토텔레스 ‘지(知)’에 관한 해석의미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비록 적은 편수이지만, 동중서, 왕충, 정현의 한대 유학사상가들의 연구 등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한·당시기 연구 분야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주제별 분류에서는 2022년도 철학사상, 정치 및 경제, 기타 분야는 전년도보다 소폭 늘었고, 경학 사상은 전년도와 비슷하나, 교육은 소폭 줄어들었다. 2022년도 주목할 점은 『주역』 관련 박사 논문이 총 3편이고 일반논문이 16편이나 발표되었다. 논문의 주제도 『주역』의 괘효나 수양론, 우환의 서사, 정치, 『주역』과 자기치유를 분석한 연구까지 매우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철학연구 분야는 모두 49편으로 전년도에 비교하면 매우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주역』 관련 분야 연구뿐만 아니라, 공자 · 맹자 · 순자와 관련된 논문 등과 동중서 · 왕충의 유학에 관한 다양한 연구 논문이 포함되어, 논의의 내용이 전년에 비교해 확대된 점이고 고무적인 현상이다. 교육 연구 분야에서는 순자 교육철학에 관한 박사 논문이 2편이나 발표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금년도 정치 분야 연구에서 『서경』, 『주역』, 『춘추』, 『공양전』 등의 정치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어 이 분야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는 선진 유학의 경전 등과 인공지능의 접목을 통하여 융복합적 지식 축적과 내외 조화의 인격 형성을 중심으로 연구가 확장되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보인다. 유학 사상이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미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가치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